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예방접종 안 한 아동 보육시설 등록 금지	뉴사우스웨일즈
사회·복지	3	싱크탱크 '팜랩', 청소년·부모 자문위원단 모집	파리
	5	'청년과 취업정보 실시간 소통' 페이스북 라이브	토스카나
행재정·교육	6	'성소수자 사회운동자료 보관' 문서고 만든다	파리
도시교통	8	대중교통정책 개선해 버스이용객 꾸준히 늘어	시애틀
	10	전기버스, 지역 최초로 도입해 노선운행에 투입	뮌헨
도시계획·주택	12	생애 첫 집구매 쉽게 준공 2년 전부터 대출 허용	런던



예방접종 안 한 아동 보육시설 등록 금지

내년부터...백일해·뇌수막염 등 전염병 발병률 줄이기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 행정·교육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백일해·뇌수막염 등 전염병 발병률을 줄이기 위해 아동 예방접종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예방접종의 효과에 의문을 갖거나 접종을 거부하는 부모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의 보육시설 등록을 금지하는 강한 규제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
- 배경
 - 2015년 6세 이하 아동의 7%가 정해진 기한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음
 - 주보건부의 조사 결과 대부분은 질병 등 신체상의 문제 때문이지만, 1.15%는 종교상의 이유 등 양심적 거부자(Conscientious Objection)로 파악
 - 예방접종의 효과에 의문을 갖는 부모가 약 30%
 -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부모는 자녀에게 예방접종을 하지만, 30% 정도는 예방접종의 의학적 효과에 의문
 - 10%는 예방접종이 자폐증 등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믿음
 - 이에 따라, 예방접종률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백일해·뇌수막염 등은 호주에서 흔한 전염병으로, 발병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필수
 - 주정부는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더 강하게 각인시키고, 전염병 발병률을 줄이기 위한 수단을 동원하기로 결정
- 주요 내용
 - 현행 예방접종 의무화 정책의 개선 필요성
 - 연방정부는 2016년 1월부터 'No 예방접종, No 보육비'(No Jab No Pay)라는 이름의 예방접종 의무화 정책을 시행 중
 - 자녀에게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보육비 지원(Child Care Benefit) 등의 사회보장 자격 요건을 박탈하는 정책

- 주정부도 2014년부터 예방접종 미접종 아동의 보육시설 등록을 금지하는 법을 도입
 - 그러나 다양한 예외조항을 허용하고 있어 더 강한 규제가 요구
- 내년 1월부터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아동의 보육시설 등록을 원천 금지
 - 자녀를 보육시설에 등록하고자 하는 모든 부모는 보육시설에 ‘예방접종 기록표’(Medicare Immunisation History Statement)를 반드시 제출
 - 보육시설은 아동이 시설을 옮기지 않는 한 예방접종 기록표를 3년간 보관
 - 기록상 예방접종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아동은 보육시설 등록이 불가
 - 이를 위반한 시설장에게는 최대 5,500호주달러(490만 원)의 벌금
- 기존 법과 달리 예외를 거의 허용하지 않음
 - 정해진 기간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은 반드시 주치의가 발급한 ‘미접종 사유서’를 제출
 -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만 허용하고, 종교 등 양심적 거부 사유는 불허
 - 보육시설 등록 이후 접종계획을 기록한 문서를 제출할 때는 등록 허용



[그림 1]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온라인 포스터

<https://www.nsw.gov.au/news-and-events/news/new-vaccination-rules-for-child-care/>

http://www.health.nsw.gov.au/immunisation/Pages/childcare_qa.aspx

<https://www.dss.gov.au/our-responsibilities/families-and-children/benefits-payments/strengthening-immunisation-for-young-children>

<https://campaigns.health.gov.au>

정용문 통신원, junraphael@gmail.com

사회·복지

싱크탱크 ‘팜랩’, 청소년·부모 자문위원단 모집

프랑스 파리市 / 사회·복지

- 프랑스 파리市의 가족·아동 정책 싱크탱크로 지난 3월 설립된 연구소 ‘팜랩’(FamLab)은 만 11~14세 청소년 40명과 파리에서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 4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모집하고, 이들의 실생활에 바탕을 둔 의견과 아이디어를 청취해 정책연구에 반영할 계획
- 배경
 - 팜랩은 파리의 가족·아동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연구소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준에 따라 여기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지칭)
 - 파리지장 안 이달고(Anne Hidalgo)의 정책목표인 ‘가족과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 3월 22일 설립
 - 파리의 가족과 아동에 관한 인구통계학적·사회학적 데이터 생산, 관련 정책의 이론적 근거 제시, 정책제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싱크탱크
 - 시정부는 팜랩을 활용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책목표를 추구
 - 1) 아동의 학업 성취를 지원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프랑스 학부모도 학업 성취에 많은 관심
 - 2) 부모가 가정과 직업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 위 목표를 더욱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 팜랩은 청소년 자문위원단과 부모 자문위원단을 대대적으로 모집하기로 결정
 - 팜랩의 연구는 사회학적, 사회복지학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이 중요
- 청소년·부모 자문위원단의 주요 내용
 - 만 11~14세 청소년 40명과 부모 4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모집
 - 자문위원단은 자신의 일상생활 이야기를 팜랩의 전문연구자에게 제공하고, 파리시에 새로운 가족·아동정책이나 실천방안 등을 제안

- 정책 대상자의 주관적 경험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사회적, 지역적, 계층적 다양성을 고려해 자문위원을 선발



[그림 1] 학교급식 문제를 논의 중인 청소년 자문위원단

- 청소년 자문위원단
 - 파리에 거주하는 만 11~14세의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 지원 가능
 - 선발된 40명은 3년간 자문위원으로 활동
 -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연구
 - 담당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를 만나 궁금증을 해결하고, 새로운 정책이나 실천방안을 제시
 - 자신이 제안한 정책에 직접 참여도 가능
 - 분기별 3차례씩 청소년 자문위원단, 심리교육가, 아동전문가, 파리시 공무원이 함께 모여 의견을 교환
 - 청소년 자문위원단을 팜랩의 구성원과 동등한 지위로 인식하고 대우
- 부모 자문위원단
 - 현재 파리에서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 40명
 - 부모 자문위원단은 간단한 지원서만 작성하면 신청 가능
 - 청소년 자문위원단과 마찬가지로 3년간 자신의 일상적 경험을 토대로 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정책 실현에도 참여

<https://www.paris.fr/actualites/decouvrez-le-famlab-un-observatoire-sur-l-enfance-et-les-familles-4668>

<https://www.paris.fr/parisdesenfants>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

‘청년과 취업정보 실시간 소통’ 페이스북 라이브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사회·복지

-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에서 청년의 경제적·정신적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프로젝트 기관인 지오바니시(Giovanisi)는 청년층에게 취업·인턴십·교육훈련 등의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문의에 답변을 해주는 방송을 페이스북 라이브를 활용해 제공
- 배경
 - 주정부는 증가하는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매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교육 정책을 늘리고 있고, 관련 프로젝트·펀드·공공서비스 일자리 등도 증가하는 추세
 - 새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청년층에 빠르게 알릴 필요성 제기
 - 청년층이 주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빠른 정보공유 서비스를 기획
 - 이메일 뉴스레터와 게시판 등 기존의 정보공유 수단과 병행
- 주요 내용
 - 페이스북 라이브 서비스를 활용해 지오바니시의 직원이 새롭게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질문에 답변
 - 지난 5월부터 월별로 주제를 정해 방송
 - 5월: 창업 컨설팅과 정부가 보조하는 소액대출 정보
 - 7월: 공통된 관심분야를 가진 협업자(co-worker)나 직업 멘토를 매칭
 - 9월: 국외 취업정보와 참여기회 제공
 - 10월에 열리는 네 번째 라이브 방송의 주제
 - 주정부의 공공서비스 일자리에 청년 1,764명을 모집
 - 2017~2018년 유급 인턴십 정보
 - 취업 전 이탈리아 전역에서 트레이닝을 받을 기회 제공

<http://giovanisi.it/2017/10/10/giovanisi-live-aggiornamenti-e-risposte-in-diretta-facebook-dallo-staff-giovanisi-prossimo-appuntamento-il-1910/>

http://giovanisi.it/categoria_evento/giovanisi-live/

김예름 통신원, yereumkim@gmail.com

행재정·교육

‘성소수자 사회운동자료 보관’ 문서고 만든다

프랑스 파리市 / 행재정·교육

- 세계 인권수도를 표방하는 프랑스 파리市는 성소수자(LGBT: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권을 위한 사회운동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행사를 조직하는 한편 소실 위험이 큰 성소수자 사회운동자료를 보관할 문서고를 건립하기로 결정
- 배경: ‘파리, 포용과 다양성의 핵심 도시’ 보고서
 - 2017년 6월 13일 파리시 관광문화 담당자인 장-뤽 로메로(Jean-Luc Romero)가 파리시장 안 이달고(Anne Hidalgo)에게 제출한 보고서
 -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52가지 정책제언을 포함
 - 파리를 성소수자 차별이 없는(LGBT Friendly) 관광도시로 만들 목적
 - 2016년 레인보우 시티 네트워크(Rainbow Cities Network: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키는 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취지를 완성하는 의미
 - 안 이달고 시장은 이 보고서를 중요시하면서, “파리는 지금까지 인권의 수도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선언
-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파리시의 노력
 -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세계행사를 파리시에서 조직하기로 결정
 - 매년 5월 17일 프랑스와 전 세계에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활동가들에게 파리시가 감사의 메달 수여
 - 내년부터 매년 6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성소수자 행진의 날로 지정
 -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소수자를 돕는 단체를 출범
 - 튀니지의 성소수자 처벌에 반대하는 단체 ‘Shams’와 난민 성소수자를 돕기 위한 파리시 협력 단체 ‘ARDHIS’를 출범
 - 성소수자에 대한 시정부의 지원을 공식화하고, 공공재정 지원을 약속

- 성소수자 관련 단체와 기업 간 파트너십 체결을 추진
 - 기업 내 성소수자 차별 감소를 위한 현장에 서명하도록 독려
- 위 맥락에서 안 이달고 시장은 다음 두 가지 프로젝트를 제안
 - 1) 성소수자 사회운동자료를 보관하는 문서고를 설립
 - 궁극적으로는 이를 중앙정부의 국가 문서고로 승격시킬 목적
 - 2) 성소수자 차별의 희생자를 기억하는 기념비 설립
- 성소수자 사회운동자료 문서고
 - 시의회는 성소수자 사회운동자료가 공적영역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소실 위험이 크고, 기록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시정부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보관하는 것은 성소수자 사회운동을 공적영역에 포함시킨다는 의미
 - 2016년 12월 시의회는 소실 위험이 있는 중요 자료를 지키기 위한 ‘긴급 보존’ 장소를 지원하기로 결정
 - 80개 이상의 단체가 1만 건 이상의 책, 잡지, 편지, 논문, 사진, 비디오, 유물 등의 자료를 제출
 - 관련 자료는 문서고의 중요한 유산으로 취급되고, 시민에게 무료로 공개
 - 앞으로도 계속 성소수자 사회운동자료를 시민에게 위탁받을 예정

<https://www.paris.fr/actualites/paris-la-capitale-des-droits-lgbti-4893>

<https://www.paris.fr/actualites/bientot-un-centre-d-archives-lgbt-a-paris-5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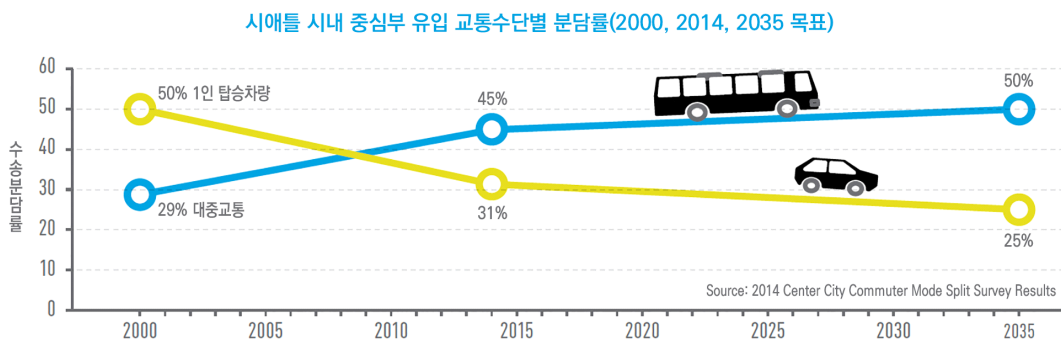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

도시교통

대중교통정책 개선해 버스이용객 꾸준히 늘어

미국 시애틀市 / 도시교통

- 미국 시애틀市는 출퇴근 시간에 일반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버스 전용도로를 운영하고 시민의 자발적 세금 인상을 바탕으로 노선을 확대·개편하는 등 다양한 대중교통 개선책을 지속 추진한 결과 미국 내 다른 주요 도시와 달리 꾸준히 버스이용객이 증가
- 개요
 - 성공적인 대중교통정책 개선으로 꾸준히 버스이용객이 증가
 - 대다수 미국 주요도시의 버스 이용률이 줄어드는 가운데 시애틀은 독보적인 버스이용객 증가를 기록 중
 - 2010~2014년 미국 주요도시 중 가장 높은 버스이용객 증가율을 기록
 - 2016년에도 4.1%가 증가해 다른 주요도시에 견줘 2배 가까이 늘어
 - 2015년에는 출퇴근하는 시민 5명 중 1명꼴인 약 78,000명이 매일 버스를 이용



[그림 1] 시애틀 시내 중심부 유입 교통수단별 분담률

- 주요 내용
 - 버스 운전기사, 시 교통부, 버스이용 시민에게 시애틀의 대중교통 개선정책의 성공요인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버스 운전기사
 - 버스 전용차선과 전용도로는 버스가 다른 교통수단보다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주된 요인
 - 특히 출퇴근 시간 특정구간에 일반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버스 전용도로는 버스의 안전하고 효율적 운행에 크게 이바지
 - 일반차량에 방해받지 않고, 혼잡구간에서 정차와 차선변경이 쉬워짐
- 시 교통부
 - 대규모 개선 프로젝트보다 다양한 개선사항을 모아 시민의 대중교통 편익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
 - 이 외에도 버스 정차구역 설치, 탑승자 섬 설치, 버스 차선복귀 구간 확보 등 소소하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해 복합적 개선 효과 추구
 - 정류장마다 조금씩 절약한 시간을 모아 전반적인 버스이용 편익을 증진
 - 가령 1마일(1.6km)짜리 버스 전용차선 신설로 절약할 수 있는 시간은 1분 30초 정도지만, 이것만으로도 버스운행의 질을 상당량 개선 가능
- 버스이용 시민
 - 시애틀시민은 버스의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일찍 깨닫고 2014년 관련 세금인상안에 62%가 찬성
 - 연간 4,500만 달러(510억 원)의 세수 확보로 버스 운행노선을 15% 확장
 -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행노선을 효율적으로 개선
 - 노선의 생산성과 저소득층의 형평성을 고려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74개 노선을 폐지하고 107개 노선을 수정

<https://www.citylab.com/transportation/2017/10/how-seattle-bucked-a-national-trend-and-got-more-people-to-ride-the-bus/542958/>

<http://metro.kingcounty.gov/planning/pdf/2011-21/2013/metro-2013-service-guidelines-report.pdf>

<https://www.seattle.gov/transit/about-stbd>

강민규 통신원, mgkang82@gmail.com

전기버스, 지역 최초로 도입해 노선운행에 투입

독일 뮌헨市 / 도시교통

- 독일 뮌헨市는 장기적으로 모든 시내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할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0월 21일 하루 300km를 운행할 수 있는 전기버스를 공개하고 11월부터 지역 최초로 노선운행에 투입할 것을 발표
- 배경
 - 전기버스 도입을 위해 기술개발 투자를 지속
 - 전기버스 기술개발 프로그램에 독일 지방자치정부 가운데 가장 많은 3천만 유로(400억 원)를 투자
 - 지난 몇 년간 여러 종류의 프로토타입 전기버스를 시험
 - 네덜란드의 전기자동차 회사 'Ebusco'를 전기버스 사업자로 선정
 - 배터리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성능 면에서 현행 디젤버스에 밀리지 않는 전기버스를 도입하기 위함
 - 계절에 따른 기후변화와 겨울철 난방 시 에너지 사용량 증가까지 고려해 하루 300km의 노선운행이 가능한 전기버스를 개발
 - 평지가 많고 일정한 주기로 주행과 정차가 반복되는 뮌헨의 교통특성은 전기버스 운행에 유리한 조건



[그림 1] 뮌헨교통조합이 지난 10월 공개한 전기버스로 외관은 현행 디젤버스와 거의 동일하다.



[그림 2] 뮌헨교통조합장 랄프 빌레트(Ralf Willrett, 좌)와 뮌헨시 노동·경제국장 요제프 슈미드(Josef Schmid, 우)의 전기버스 충전 시연

- 주요 내용
 - 지난 10월 21일 뮌헨교통조합(MVG: Münchner Verkehrs Gesellschaft) 박물관 개장 10주년을 맞아 새롭게 도입한 전기버스를 대중에게 공개
 - 11월부터 2대의 전기버스를 정규 노선운행에 투입할 예정이고, 운전자에게 관련 교육을 시행
 - “전기버스 도입은 뮌헨시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촉진 정책에 도움이 되고, 미래 교통수단의 도입을 원하는 다른 지자체에는 모범사례가 될 것” - 요제프 슈미드 뮌헨시 노동·경제국장
- 향후 계획
 - 장기적으로 모든 시내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
 - 올해 안에 7대의 전기버스를 추가로 도입하고, 그중 2대는 굴절버스로 구입
 - 2019년까지 주요 노선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하고, 가능한 모든 노선에서 시범운행을 시행할 예정
 - 뮌헨교통조합은 장기적으로 전기차 주차장과 충전소를 완비할 계획

<http://www.muenchen.de/aktuell/2017-10/probefahrt-mit-elektrobus-der-mvg.html>

<https://www.merkur.de/lokales/muenchen/stadt-muenchen/muenchens-erster-e-bus-ist-neue-fluester-bus-mvg-8785432.html>

선지원 통신원, jiwon.sun@gmail.com

도시계획·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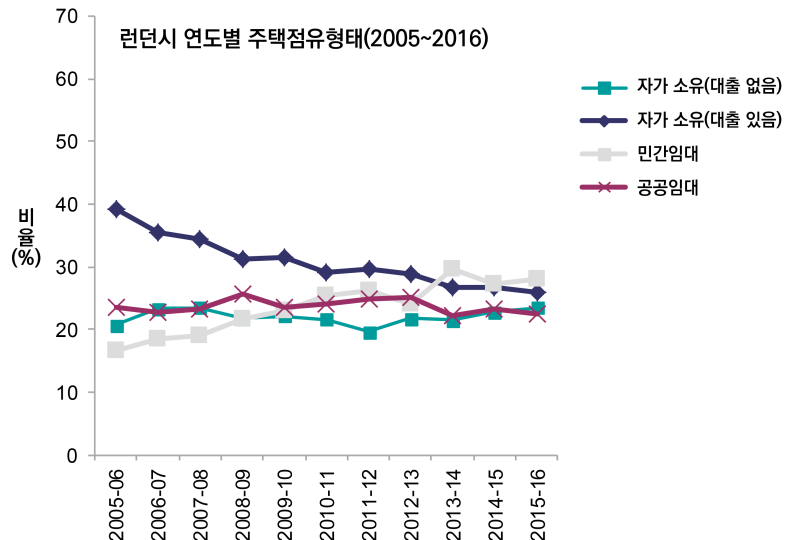
생애 첫 집구매 쉽게 준공 2년 전부터 대출 허용

영국 런던市 / 도시계획·주택

- 영국 런던市는 생애 첫 집구매자(First-time Buyers)를 위한 ‘주택구매 지원정책’(Help to Buy)을 시행 중이지만, 투기세력이 실수요자보다 먼저 주택구매 기회를 가로채는 문제가 정책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림을 파악하고 이를 막기 위해 주택 준공 최대 24개월 전부터 모기지대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책 개선을 추진

- 배경

- 런던시민의 자가주택소유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주택난이 심각
 - 투기세력과 중국·중동 등지의 해외자본 유입으로 크게 악화
 - 런던의 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



[그림 1] 런던시 연도별 주택점유형태(2015~2016 회계연도 자가주택소유율 49%)

자료: 「English Housing Survey 2015-2016」, 영국 지역사회·지방정부부(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 주요 내용

- 생애 첫 집구매자를 위한 주택구매 지원정책이 있지만, 활용이 어려움
 - 생애 첫 집구매자가 60만 파운드(9억 원) 이하의 신축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가격의 40%까지 정부에서 대출해주는 정책
 - 나머지 주택가격의 5%는 구매자가 지급하고, 55%는 시중은행의 모기지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구매하는 형식
 - 그러나 시중은행의 모기지대출은 주택 준공 6개월 전부터 이용 가능
- 런던의 주된 주택 구매제도인 선분양제에 맞는 대출 가능 기간 조정이 필요
 - 집을 사는 주된 방식이 준공 1~2년 전에 미리 주택을 구매하는 선분양제이기 때문에, 6개월 전에 구매가 어려운 상황
 - 투기세력이 주택 준공 1~2년 전에 현금동원력을 바탕으로 모기지대출 이용자보다 먼저 주택구매 기회를 가로채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
- 런던시장 사디크 칸(Sadiq Khan)은 중앙정부 재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불합리한 대출정책의 개정을 요구
 - 실수요자의 첫 집구매를 위해 정부의 보증으로 주택 준공 최대 24개월 전부터 모기지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촉구

-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

- 런던의 생애 첫 집구매자들이 투기세력과 대등한 위치에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
- 해외자본과 투기세력 때문에 런던 내 빈집이 늘어나는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 가능할 것으로 전망
- 해외자본과 투기세력에게 더 높은 인지세(Stamp Duty Tax)를 부과해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고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에도 활용할 계획

<https://www.london.gov.uk/city-hall-blog/government-must-extend-help-buy-mortgages>

<http://www.theweek.co.uk/house-prices/55455/help-to-buy-how-it-works-and-who-should-apply>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english-housing-survey-2015-to-2016-headline-report>

<https://www.helptobuy.gov.uk/equity-loan/london-help-to-buy/>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정책 수립 및 도시 분야 연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세계 선진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시의성 있는 정책사례를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해
세계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해외통신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간과 관련된 문의사항과
발간에 참고할 만한 의견, 개선사항 등이 있으시면
도시정보센터 편집출간팀 담당자(02-2149-1017,
cyw797@si.re.kr)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뉴욕	이창주
	황 하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시애틀	강민규
시카고	김용훈
런던	오도영
버밍엄	정기성
파리	배세진
	양영란
원헨	선지원
베를린	유진경
바르셀로나	진광선
시드니	정용문
도쿄	김민주
	이승민
	이용원
베이징	박성은
상하이	문혜정
홍콩	강민이
싱가포르	서보경
피렌체	김예름
스톡홀름	허윤희